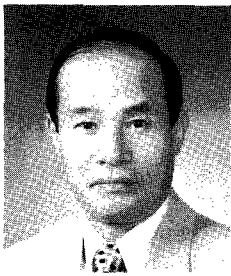


## 가금위생 해외뉴스

### 오경록 ◀코너



오 경 록  
남덕 싸니테크

#### □ 가금 법정전염병의 방역대책

효오고현 가금질병센터에서는 산란계 농장의 대규모화와 더불어 방역위생대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에 경험한 뉴캐슬병을 모델로 하여 법정전염병(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한 문제점, 대책을 검토하였다.

법정전염병(특히 가금인플루엔자)을 가정으로 하여 야외에서의 예방대책으로서 실무상의 문제점을 고려하고 이동제한 살처분, 도살에 관한 지시, 폐사계 소각 등의 의무(소각, 매몰 등의 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실제로 법정전염병에 감염하기전에 초기단계의 현의 수준, 결국 가축방역의 제 1선에 위치한 가축보건소와 대규모 양계 농장에서의 지켜야할 사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는 검토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가축보건소의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한 진단 기능을 충실히 하고 최종적으로는 바이러스의 병원성, 혈청형의 결정은 농수성 가축위생 시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가축위생시험장과의 연락조정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진단기능을 가축보건소에 자주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2) 대규모 양계농장은 가축위생정보의 원활한 교류

3) 역학적인 면을 기본으로 광역권의 방역 행정에 대한 검토

4) 전염병 발생에 따른 대량의 폐사계의 매각, 소각처분장 처리 방법의 설정

5) 생산자의 상호보상, 공제제도의 검토

이상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무엇보다도 지역의 양계농가가 자주적 방역 입장에서 가축보건소를 중심으로 방역조직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NK '97. 12)

#### □ 감보로병 생독 백신 선택

감보로병 생독 백신은 다음의 4가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1)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과 그 지역의 야외주와의 적합성 : 야외주와 백신주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의 판단은 중화교차시험,

담크론항체,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등의 시험에 따른다.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분석에 의하면 백신의 루커트주와 미국내의 야외분리 주의 85% 또한 한국, 대만, 칠레에서 분리한 야외주가 거의 동일한 항원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2) 백신 바이러스의 적당한 강도 : 생독백신의 병원성의 강도는 다음 6가지 지표로 결정한다. ① F낭 병변지수 ② 초생추 이행 항체에 대한 능력 ③ 닭의 항체응답 ④ F낭과 체중의 비율(중량비) ⑤ 백신 접종에 의한 면역억제 ⑥ 백신의 접종반응 특히 F낭 병변지수는 백신 접종후에 F낭의 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림프조직의 병변지수를 컴퓨터를 이용한 이미징 시스템에 따라 분석·평가한다.

3) 생독백신의 투여방법

4) 생독백신이 계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야외에서 감보로병이 발생한 농장에서는 장기간 생독백신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계사 주위에 존재하는 감보로병 야외주를 백신주로 바꾸어 놓는 것이 필요하고 닭에게 영향이 적은 백신을 계속 접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NK. '97. 12)

## □ 부화장 유래의 살모넬라균 감염

덴마크의 육계군에서 살모넬라 엔트리카 세로바테네시(SE-T)균의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왕립 수의농과대학에서 '94년부터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화장의 세척소독 방법의 분석, 부화장의 여러 관리 중점 부위의 검사에서 SE-T 세균의 발생기 부분에 고착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세척과 소독에서도 계속 남아 있

는 것을 알았다.

또한 부화장에서 분리한 SE-T세균이 육계에서 분리한 SE-T 세균과 동일한 것을 알았다. 발생기의 문체 지점의 세척소독으로 발생기의 SE-T 세균을 철저히 제거하여 육계 계군에서의 SE-T 감염율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관리 중점 부분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하지 않으면 각종 살모넬라균이 정착할 수 있으며 의식하지 못한채 부화장에서 장기간 살모넬라균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였다.(PD. '97. 10)

## □ 품종별 교배에 따른 복수증 발생

캐나다의 라발대학교에서는 복수증후군의 품종간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8개 라인의 육계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8개 라인을 각각 교배한 육계를 3주령까지 3,300kcal 에너지와 24% 단백질 수준의 사료를 급여하고 3주령부터 6주령까지는 20% 단백질 수준의 사료를 급여하였다.

21일령과 42일령에 체중측정과 사료요구율을 계산하고 채혈하여 혈구용적율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도계하여 심장, 간, 폐, 비장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폐의 부피는 물을 넣어 측정하였다.

사료 요구율과 폐사율을 제외하고 모든 교배 라인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산소결핍증에 적응하는 변화를 표시하는 혈구용적율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육계라인에 따라 산소결핍증을 줄이고 복수증후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PD. '97. 10)